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 그 필요성과 모색*

- 공적신학과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김 남 희
(가톨릭대학교)

【요 약】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인의 '시민 참여도'는 높은데 비해, '삶의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시민 참여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 구성원 내 갈등이 극대화 되어 표출된 모습이 바로 2016년 촛불집회라 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권력을 재확인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회는 '시민권력'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게 한 운동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고민은 촛불집회가 끝난 지 1년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촛불집회가 보여준 '시민권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종교적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교회 밖으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신앙의 사회적 차원인 '공적 신앙'(public faith)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오늘날 '공적 종교'(public religion)의 역할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교회 안으로 향한[Intra Ecclesiam] 관점과 교회 밖으로 향한[Extra Ecclesiam]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을 모델로 삼아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톨릭 성인교육, 공적 종교, 공적 신앙, 공적 신학, 사회 갈등

*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는 말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Better Life Index」¹⁾에 따르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는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랭킹이 2017년에 세계 11위이었던 반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지수는 수년째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²⁾

2017년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BLI’ 지수는 11개의 영역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주거(6위)와 교육(10위), 그리고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동체(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은 낮은 순위에 그쳤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표가 있는데, ‘시민참여도’와 ‘공동체성’이다. ‘시민참여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지수이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이 주된 지표라 할 수 있다. 2017년 OECD ‘시민참여도’의 평균은 68%였는데, 한국의 ‘시민참여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76%였다. 이는 한국의 시민은 투표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의 ‘공동체성’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여기서 ‘공동체성’은 ‘사회적 관계’ 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 함께 수행하는 활동이 즐거운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성’ 지표에서 38위라는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사회 내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따른 ‘삶의 만족도’(30위)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35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일과

1)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을 발간하고 2017년 「Better Life Index」를 함께 공표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 동향을 주거(Housing), 소득(Income), 직업(Jobs), 공동체(Community),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건강(Health),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안전(Safety),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등 11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로 구성하고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ow's life?」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 「Better Life Index」는 각 국가의 삶의 질을 단순히 1인당 GDP와 같은 소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조사한 지표로서, 소위 ‘웰빙지수’라 할 수 있다. 「Better Life Index」와 관련된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참조.

2)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3년 27위 → '14년 25위 → '15년 27위(이상 36개국 중) → '16년 28위 → '17년 29위(38개국 중)였다.

삶의 균형'은 개인과 사회 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Better Life Index」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 참여도'에 비해 최하위의 '공동체성'은 기존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적 참여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투표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잠재되었던 갈등이 극대화 되어 표출된 현상을 2016년 촛불집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일차적 목적은 “세습권력과 그 세습권력에 빌붙어 충성해 온 직업정치인, 관료, 언론 등으로 구성된 지배체제를 탄핵하기 위한 것”³⁾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아이를 돌보다가, 광장으로 모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김해자 시인이 외친 바와 같이,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여기에 모이지는 않았다.’⁴⁾는 것이다. 그들은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져버린” 그리고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도 되물림되는” 세상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김해자 시인이 노래한 바와 같이, “당도 대통령도 우리의 절대 희망이 아니다. /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대통령도 정당도 모른 채 / 즐겁게 밥 먹고 평화롭게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되는 세상”이었다.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요구가 지배세력을 압도할 만큼 강하게, 하지만 평화적으로 표출된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권력을 재확인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정책의 논의와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시민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장에서의 항거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당시 촛불집회가 가진 한계에 대하여 김종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무리 끈질기게 계속한다 하더라도 광장에서의 항거와 싸움은 어차피 영구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조만간 촛불의 크기는 줄어 들고, 마침내 식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냉정히 고려해야 한다.”⁵⁾ ‘시민권력’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고민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본 논문은 촛불집회가 보여준 ‘시민권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김종철은 촛불시위 이후의 제도적인 대안으로 ‘시민의회’, ‘시민주권회의’를 소개

3) 김종철, 「촛불시위와 ‘시민권력」, 『녹색평론』 152(서울: 녹색평론사, 2017), 2쪽.

4) 김해자, 「여기가 광화문이다」, 『함께 꾸는 꿈』 110(대구: 대구참여연대, 2017), 16-17쪽.

5) 김종철, 앞의 글, 7쪽.

한 바 있다. 이는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적인 틀로서 기성의 정치가들이 민중의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하는 정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⁶⁾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는 정치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에 대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갈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종교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Intra Ecclesiam]서의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Extra Ecclesiam] 사회를 향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톨릭 성인교육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신앙의 사회적 차원인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고찰하고, ‘공적 종교’(public religion)로서 가톨릭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적 종교’ 안에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델을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사회에 만연된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화해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톨릭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

1. 종교의 ‘공공성’ 인식과 ‘공적 종교’의 등장

일반적으로 신앙(faith)은 믿음(belief)과 행동(action), 태도(attitude)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⁷⁾ 나아가 신앙에 대한 규정은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즉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성당에 다니면 가톨릭 신자인지’, ‘교리의 내용을 믿고 충실하게 살면 가톨릭 신자인지’ 등에 대한

6) 같은 글, 11쪽.

7)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神學展望』 177(나주: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151쪽.

성찰적 질문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희완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성당에 다니는 것과 교리로만 우리를 가톨릭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성적 동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적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⁸⁾

정희완 신부가 제기한 바와 같이,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올바른 태도로 이어지기 위해 교회와 신앙인이 지녀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가톨릭적 태도의 핵심으로 Gaillardetz의 의견⁹⁾을 빌어 겸손과 관대함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여기서 겸손과 관대함 그리고 포용은 자기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교만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옹졸함을 갖지 않는 태도 그리고 진리의 이름으로 타자를 심판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가톨릭 신앙은 가톨릭 관습과 교리에 익숙해진 소극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데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 이후 세속화의 영향으로 신앙은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후기 전통사회(post-traditional society)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개인은 사회적 계층이나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사회 체제 재생산(reproduction for the social order)의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또한 개인화(individualization)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동일하고 표준적인 생활양식의 선택을 동반하면서 개인의 삶과 환경을 획일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로써 개인은 동일화와 표준화 과정에 자신이 수렴되면서 체제적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교리주의 사이, 혹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근대사회는 개인화와 체제화(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을 통하여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게다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영향으로 모든 문화적 전통은 상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도덕 및 종교적 신념의 확립에서 개인의 선택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¹⁰⁾

8)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29(경산: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6), 107쪽.

9) Richard R. Gaillardetz, *An Unfinished Council: Vatican II, Pope Francis, and the Renewal of Catholicism* (Liturgical Press, 2015), pp.138-148; 위의 글, 107쪽에서 재인용.

10) Eds., Richard R. Osmer, Friedrich L. Schweitzer, *Developing a Public Faith: N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46-248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제시해 온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통한 사회적 통합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적 및 사적 영역으로 사회구조가 분화되면서 종교를 더욱 사적 영역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신앙을 개인적 측면인 실존적, 내면적 차원으로만 강조하게 되면서 신앙의 모습 또한 경건주의와 현실도피주의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¹²⁾ 이는 종교가 사사화(privatization)되고, 주변화(marginalization)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화와 주변화로 밀려나게 된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위축되어 마침내 쇠퇴할 것이라는 세속화 이론에 대하여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호세 카사노바(José Casanova)는 종교 세속화의 의미를 근대 국가, 자본주의 시장, 근대 과학과 같은 영역이 종교영역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되어 가는 과정임을 재확인했으나, 그것이 곧 종교의 쇠퇴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종교의 세속화 과정은 종교가 자신의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세속화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후퇴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쇠퇴하였음을 지적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작동되는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인 것들의 새로운 조건과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영적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고, 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타랄 아사드(Talal Asad)는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종교는 항상 국가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어 왔다고 주장했다.¹³⁾ 카사노바와 테일러 그리고 아사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속화가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쇠퇴를 초래하고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제 종교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며 공적 영역에서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공적 종교로서 사회 내의 공공성을 지향하며, 사유화되고 주변화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앙에 대한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인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곧 관계의 하느님, 사회적 하느님, 참여하는 하느님임을 재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신앙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의

11) 위의 글, 250-251쪽.

12)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150쪽.

13) José Casanova, "Secularization Revisited: A Reply to Tala Asad", eds., David Scott & Charles Hirschkind, *Powers of the Secular Modern: Talal Asad and His Interlocutor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2-15; Charles Taylor, *A Secular Ag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437; Talal Asad, *Formations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200-201; 세속화에 대한 호세 카사노바, 찰스 테일러, 타랄 아사드의 견해를 정희완의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153-155쪽에서 재인용.

신앙은 공동체적인 사회적 신앙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신앙을 토대로 전개된 신학이 바로 ‘공적 신학’(Public Religion)¹⁴⁾이다. 공적 신학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¹⁵⁾이다.

2. ‘공적 신학’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적 함의

공적 신학의 대두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에 대한 성찰과 신앙의 총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아가 공적 신학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의 장으로 나가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로버트 벤(Robert Benne)은 신학이 인간 공동의 삶과 관계되는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역으로 침투되는 것이 공적 신학임을 천명하고, 곧 공적 신학은 종교와 사회를 구분하기는 하되 분리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¹⁶⁾ 로널드 티먼(Ronald F. Thiemann) 또한 공적 신학을 그리스도교적 확신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

14) 미국에서 시작된 공적 신학은 이념과 교파의 차이에 따라 프로테스탄트 공적 신학, 가톨릭 공적 신학, 신보수주의 공적 신학 등으로 분류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성향을 정치신학으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던컨 포레스터에 따르면, 공적 신학은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교도권적(magisterial) 공적 신학과 해방운동가적(liberationist) 공적 신학으로 구분된다. 교회와 신학이 권위적 방식을 통해 신자와 시민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도권적 수행방식은 주로 미국의 공적 신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의 투쟁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해방운동가적 수행방식은 남미 해방신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적 신학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공적 신학은 아직 생소한 신학분야라 할 수 있다. 정희완 신부가 유일하게 공적 신학을 연구하고 있다.

용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Public Theology’를 통일된 한국어로 명명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 ‘public’이라는 단어를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공공’이라 해석하고, 가톨릭에서는 ‘공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임성빈은 사회학이나 철학, 시민사회에서 ‘public’을 이미 ‘공공’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이란 단어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반명 정희완 신부는 ‘public’ 해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따라서 ‘public’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참조,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1995), p.26; Duncan B. Forrester, *Truthful Action: Explorations in Practical Theology*(Edinburg: T&T CLARK, 2000), p.118; 정희완, 위의 글, 162쪽;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22쪽 참조.

15)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 Max Stackhouse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7), 57쪽.

16)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p.4;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7) 68쪽에서 재인용.

를 이해하려는 신학이라고 정의했다.¹⁷⁾ 여기서 공적 신학의 중요한 명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공적 맥락’(public context), ‘공적 상관성’(public relevance)이다. ‘공적 맥락’과 ‘공적 상관성’이란 곧 종교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신학은 교회 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종교적 담론이 이해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을 논의하는 장은 종교적 공동체에서 사회적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자료, 방법론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자신의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설득력 있게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¹⁸⁾

물론 공적 신앙의 등장 이전에도 교회의 사회참여는 있었다. 교회의 사회참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¹⁹⁾ 첫 번째는 ‘운동(movement)으로서의 사회참여’ 유형이다. 이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신앙인과 교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하는 입장에서 활동하는 유형이다. 근대화와 세속화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신앙인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사회·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건전한 민주화를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를 하면서 사회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신앙인이나 교회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치적인 사회참여’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운동들과 거리를 두면서 사회참여를 모색하는 운동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과 신앙이 더 중요하며, 운동으로서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정치적 사회참여 유형은 공공 영역에 대한 신앙인들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회참여’ 유형이다. 이는 종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적 이익 단체를 결성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의 사회참여는 ‘운동으로서의 사회참여’나 ‘비정치적 사회참여’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과 결부되어 당파에 휩쓸린다면 사회참여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게다가 근본주의적 성

17) Ronald F. Thiema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p.21; 위의 글, 67쪽에서 재인용.

18) 앞의 글, 68쪽.

19)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23-27쪽 참조.

향을 가진 신앙인이나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유형 모두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가치관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로부터 교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위의 세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참여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바로 교회와 사회와의 면밀한 ‘맥락’과 ‘상관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초월적이고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측면만 강조해온 신앙과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적 맥락’ 또는 ‘공적 상관성’이다. 종교가 공적으로 사회와 맥락 또는 상관성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 행위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신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희완은 신학의 컨텍스트를 강조하면서 신학은 “교회 안의 규범뿐 아니라 교회 밖의 다른 학문적 기준과 규범에 의해서도 검증되어야”²⁰⁾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학의 ‘공적 맥락’과 ‘공적 상관성’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는 “신학은 단순히 이론이기보다는 신앙의 실천 행위들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천을 지향”²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 신학자들이 주창하는 신앙에 대한 성찰과 실천으로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자 교육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공적 신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공적 맥락에 기반한 성인의 도야 가능성(Bildsamkeit)이다. 성인교육의 주된 교육대상인 성인은 청소년보다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제약이나 한계상황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는 ‘삶의 자명성’과 ‘상황적 연속성’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삶의 자명성과 연속성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성인기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의식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성인기에 겪게 되는 갈등과 위기의식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결국 공적 신학에서 강조하는 공적 영역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에서는 누군가가 강압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끌어주는 훈육(Erziehung)보다는 자의적인 각성 및 성찰 등을 통하여 자신을 연마하는 자발적인 도야(Bildung)의 영역이 보다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각자 자발적 삶의 의지(Lebenswille) 또는 학습 의지(Bildungswille)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²⁾

20) 정희완, 앞의 글, 158쪽.

21) 정희완, 위의 글, 159쪽.

22) 이상오, 「Spranger의 문화인간학적 시각에서 본 성인교육의 가능성」『教育學研究』 34권 5호(서울: 韓

두 번째는 가톨릭의 공적 참여에 관한 측면이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성직자의 수직적이며 일방적인 사목적 풍토에서 실시된 일회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신자들은 다양하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삶에서 부딪히는 공적 문제와 사적인 신앙의 괴리는 근원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볼프(Miroslav Volf)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인 현실을 형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영혼이나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국한된 점을 비판하면서, 신자들의 공적 참여가 배제된 신앙을 ‘신앙의 나태함’이라 지적한 바 있다.²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톨릭의 공적 신학과 공적 참여는 ‘가톨릭 성인교육’이라는 장(場)에서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하게 공공성과 시민성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III.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새로운 모색

1. ‘교리교육’[Intra Ecclesiam]에서 ‘가톨릭 성인교육’[Extra Ecclesiam]으로

그리스도교는 공적 종교로서 사회 내의 공공성을 지향하며, 사유화되고 주변화된 종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적 신학을 사상적, 실천적 토대로 발전시켜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에서만 아니라 종교교육 및 교리교육에서도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교회의 쇄신을 강구하면서, 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을 강조하는 교리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교육을 ‘평신도 재교육’이라 명명했다. ‘평신도 재교육’은 평신도의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평신도 재교육’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신자 재교육’으로 새롭게 명명된다. 이는 1980년대에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오히려 냉담신자가 늘어나면서 세례받은 신자들을 다시 교육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신자 재교육’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신자들을 다시 새롭게 교육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예비자 교리교육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교육 내용에 있어 사회 내의 ‘공공성’과 관련된

國敎育學會, 1996), 450-457쪽.

23)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37-39쪽.

신학적 교육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신자는 성직자가 교육시켜야 할 피동적인 교육대상이라고 인식되었다. ‘신자 재교육’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용어가 ‘지속적인 교리교육’이다. 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전 생애를 걸쳐 실시되어지는 신앙교육이다. ‘지속적인 교리교육’은 신자 재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전 생애 동안에 받아야할 평생교육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여전히 사적인 신앙, 즉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교리교육의 ‘공공적 맥락’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교리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을 의미한다. ‘신자’에서 ‘성인’으로 교육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 성인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²⁵⁾ 또한 일시적으로 교회 내에서 ‘평신도 평생교육’이 언급된 적도 있다. 사제와 평신도 모두 자신의 쇄신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2006년도 통합사목연구소에서 연구, 발표된바 있다. 하지만 논의만 되었을 뿐 실제 교리교육에서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평신도를 위한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던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²⁶⁾

교회가 신앙교육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개인적 신앙쇄신,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리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교리교육을 확장하여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지향하는 교육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이라 명명할 수 있다.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가톨릭 신자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덕목이 실현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 또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²⁷⁾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삶을 성찰하고 그리스도교의 비전으로 재조망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²⁸⁾ 가톨릭 성인

24) 김남희,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神學展望』 192(나주: 광주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54-56쪽.

25) 위의 글, 56쪽.

26) 임철일, 「평신도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교회 내 평생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 (통합사목연구소 2차 연구발표회 자료집, 2006), 39-57쪽 참조.

27) 김경이, 「가톨릭 신앙공동체 성인 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Sharing Praxis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93쪽.

28) 같은 글.

종교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토마스 그룹의 SP (Sharing Praxis)로, 비판적 성찰과 참여,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교와 역사적 매개성에 대해 신앙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²⁹⁾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겪은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기존의 신앙교육인 교리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이 “가톨릭 신앙의 본질에 기반을 두며 선교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³⁰⁾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교리교육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토마스 그룹 또한 종교교육을 교리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가톨릭 성인 교리교육’이며, 곧 ‘가톨릭 성인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³¹⁾ 즉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사목현장에서 ‘가톨릭 신앙공동체’ 구현을 위해 ‘가톨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모형’인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방법에서 모두 교회 안의 교리적 범주, 각 종파적 입장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성인 교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실시해 온 ‘평신도 재교육’, ‘지속적인 교리교육’, ‘성인 교리교육’, ‘평신도 평생교육’, 그리고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여전히 신앙을 개인적 측면인 실존적, 내면적 차원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토마스 그룹이 강조하는 SP에 따르면, 신자 개인의 신앙 이야기와 성찰적 활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 이야기에서 그 비전을 확인하게 하고,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주인의식은 신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킨다. 이로써 신자들은 신앙적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³²⁾ 이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로부터 교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은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올바른 신앙으로의 회귀, 즉 교회로 향하는[Intra Ecclesiam] 교리교육이라 할 수 있다.

29) 토마스 그룹은 S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실재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적 매개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참여적이고 대화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이야기에 대해 대화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프랙시스의 창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적절하고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함께 통합하는 접근이다.” Thomas Groome,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1), p.135.; 김경이, 위의 글, 194쪽에서 재인용.

30) 김경이, 위의 글, 191쪽.

31) 같은 글.

32) 토마스 그룹의 SP(Sharing Praxis)에 대하여 김경이, 위의 글, 195쪽 참조.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특정 종교가 더 이상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통한 사회적 통합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교교육 또한 공적인 논쟁들이나 비그리스도교적인 전통인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리스도교인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적 상관성’, ‘공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종교교육이 바로 ‘가톨릭 성인교육’이다.

가톨릭 성인교육이란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육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자재교육의 일환이지만, 사회 안에서는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신자들을 독실한 교인(churchman)으로만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즉 자기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양하고 자기 개방적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목표이다. 이러한 공적 맥락에서의 교육목표는 곧 교육내용으로 이어진다.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범주에서 성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치, 사회, 종교, 윤리적 범주에서 신학적 담론은 자연스럽게 논의된다. 이때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사제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과 일반 시민들이다. 교회 내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구성원인 일반 시민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³³⁾ 또한 성인교육을 평생 교육, 지속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성인’의 범주를 고찰한다면, 결국 신학적 담론이 모든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할 수행성을 전제로 함을 내포한다.

따라서 공적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맥락과 실천성은 ‘가톨릭 성인교육’의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한편 교회 밖을 향한[Extra Ecclesiam] 가톨릭 성인교육은 세상 속에서 신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변혁적 담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성인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Die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Deutschland)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³⁴⁾

33) 김남희, 앞의 글, 59-62쪽.

34) 한국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공공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회교리’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는 ‘사회교리’의 교육대상과 교육방법 교육목적과는 다른 공적 영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실현한 교육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리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평신도가 교육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체계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신도가 ‘교인’(churchman)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시민’이 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체계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에 대한 모색에서 독일의 가톨릭 성인교육 체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으나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실정에 비추어 한국적 교육체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물론 독일과 한국의 교육 및 종교 지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2.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Die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Deutschland)은 1950년대에 독일의 가톨릭 정신과 성인교육의 정신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 시스템이다. 각 교구 산하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교육운동이기도 하다. 가톨릭 성인교육은 1957년에 조직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Die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Deutschland – Bundesarbeitsgemeinschaft e.V., KEB Deutschland e.V.)³⁵⁾로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56 개의 교구 산하 교육기관(Mitgliedern)과 600여 개의 다양한 단체(Einrichtungen)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독일 내 공인된 성인교육 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조직이며, 종교, 문화 등의 계속교육(Weiterbildung)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은 각 교구의 지침을 존중하며,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계간지 『EB』(ERWACHSENENBILDUNG, 성인교육)와 학술서적 출간, 학술대회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교육 상부기관으로서 산하 각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³⁶⁾

교회의 공적참여와 관련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목표이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목표는 ‘자아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고’ 민주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종교적인 가르침과 성인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³⁷⁾ 여기서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교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성인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성인 한 개인의 성장과 계발을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자를 ‘교회로 향하게’[Intra Ecclesia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Extra Ecclesiam] 함으로써, ‘가톨릭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톨릭 성인교육의 우선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이다. 종교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교구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겐스

35)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이전에 ‘독일 연방 가톨릭 성인교육 연맹’(KBE, Katholische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Erwachsenenbildung e. V.)으로 명명했으나, 2013년 10월 1일 조직명을 변경하였다.

36)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체’ 기관 사이트 <https://keb-deutschland.de/profil/> 참조.

37) 김남희, 위의 글, 57-58쪽.

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구분
종교(Religion)	신학, 영성, 교회론, 종교 간의 대화	종교교육
관계성(Beziehung)	올바른 관계 형성 및 자아실현	성인교육
가족(Familie)	생애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및 자녀교육	
사회(Gesellschaft)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정의 실현	
문화(Kultur)	문화 경험 및 건강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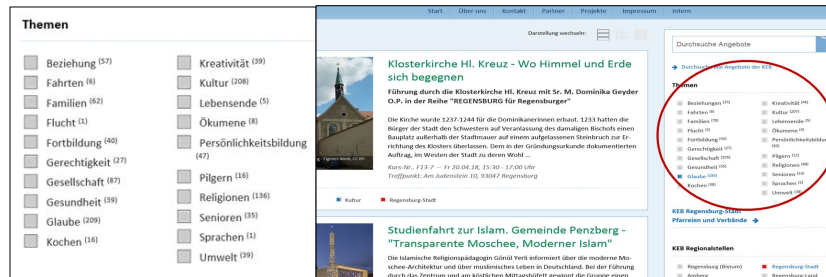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가톨릭 성인교육은 전문적인 신앙 교육을 토대로 하되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신앙의 내면화(interiorization)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에 참여하는 실천’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닌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 사회, 문화와의 대화 가능성,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실천 이성에 기초한 신학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경재는 이러한 변증법적 연결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복음 신앙의 진정한 ‘내면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유인’으로 탄생하는 필수과정 이므로, 그런 과정을 거친 개인이나 공동체라야만 진정한 ‘사회참여 신앙’으로서 ‘신앙의 공공성’에 투철할 수 있는 ‘섬기는 봉사자’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앙의 내면화와 사사회를 구별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긴밀성을 토대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KEB,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er Stadt Regensburg e.V.)에서는 5개 교육영역의 대주제에서 20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38)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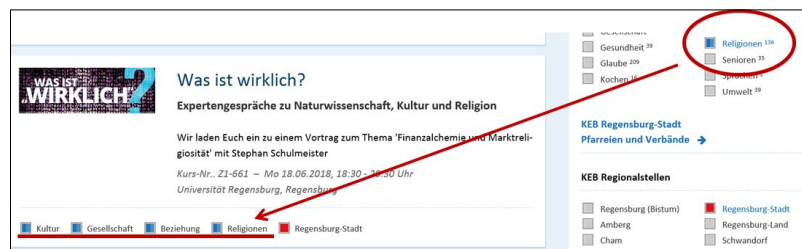
<https://www.keb-regensburg-stadt.de/ueber-uns/die-keb-in-regensburg/> 참조.

39) 김경재,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관한 한국 개신교의 두 흐름」『공공철학』16(동경: 동경대학출판회, 2006), 23쪽;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용인: 킹덤북스, 2010), 70쪽에서 재인용.



〈그림 1〉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 내용

위의 〈그림 1〉 오른쪽 상단에 20개의 강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관계(Beziehung), 여행(Fahrten), 가족(Familien), 여가(Flucht), 계속교육(Fortbildung), 정의(Gerechtigkeit), 사회(Gesellschaft), 건강(Gesundheit), 신앙(Glaube), 요리(Kochen), 창의성(Kreativität), 문화(Kultur), 죽음학(Lebensende), 교회일치(Ökumene), 인격형성(Persönlichkeitsbildung), 순례(Pilgern), 종교(Religionen), 노인(Senioren), 언어(Sprachen), 환경(Umwelt)의 주제를 클릭하면, 바로 강좌 소개로 연결된다. 소개된 강좌 아래에는 교차되는 교육 주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 영역

위의 〈그림 2〉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교’(Religionen)를 클릭하였을 때 소개되는 강좌명은 ‘진짜란 무엇일까’(Was ist wirklich?)이다. 내용을 보면, 강좌 소개와 일치, 장소가 언급되고, 종교(Religionen), 자연과학, 문화 전문가와의 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하단에 교육 소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Kultur), 사회(Gesellschaft), 관계(Beziehung), 종교(Religionen)에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 소주제 옆에는 작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강좌수이다. 20개의 주제 가운데 신앙(Glauben)과 종교(Religionen)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209개, 136개로 가장 많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것[Extra Ecclesiam]을 보여주는 교육현장이라 할 수 있다.⁴⁰⁾

40)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강좌에 대하여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적참여와 관련하여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자 교육 프로그램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조직체계이다. 각 지역에 있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에 소속되고,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주 연방 가톨릭 성인교육'에 소속되며, 최종적으로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으로 귀결된다.⁴¹⁾ 각 가톨릭 성인교육은 조직적으로 상위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과 연관을 맺고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수법, 재정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체계적 조직 속에서, 가톨릭 성인교육이 사회와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은 바로 보편교회의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가톨릭 성인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적 신학은 거대담론이지만, 공적 참여는 지역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가톨릭 성인교육' 산하에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이 있다.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상징적으로 레겐스부르크 교구에 있는 지역 교회 성인교육의 중심점 역할만 할뿐 실질적인 교육은 각 지역교회 성인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톨릭 성인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관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국'(KEB Regensburg Stadt e.V.)이다. 그러나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국도 교육운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뿐 모든 교육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레겐스부르크 교구 내 지역 교회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간다.



〈그림 3〉 레겐스부르크 교구 내 각 지역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강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지역기반 교육 운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 3〉 오른쪽을 보면, 레겐스부

<https://www.keb-regensburg-stadt.de/aktuelle-veranstaltungen/> 참조.

41) 예를 들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KEB Regensburg Stadt e.V.)은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KEB Bistum Regensburg e.V.)에 소속되며,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바이에른 가톨릭 성인교육'(KEB Bayern e.V.)에 소속되며, '바이에른 가톨릭 성인교육'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KEB Deutschland e.V.)에 최종적으로 소속된다.

르크 교구 내 각 지역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이 나열되어 있다. 교구 성인교육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성인교육 기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레겐스부르크 교구(Regensburg Bistum) (2) 레겐스부르크-시(Regensburg-Stadt) (3) 레겐스부르크-근교(Regensburg-Land) (4) 암베르크(Amberg) (5) 캄(Cham) (6) 딘골핑-란다우(Dingolfing-Landau) (7) 켈하임(Kelheim) (8) 노이슈타트-바이텐(Neustadt-Weiden) (9) 슈반도르프(Schwandorf) (10) 슈트라우빙-보겐(Straubing-Bogen) (11) 티르첸로이트(Tirschenreuth) (12) 분지델(Wunsiedel). 레겐스부르크 교구 내에서 가톨릭 성인교육이 12개의 기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가톨릭 성인교육이 지역교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그림 4>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4> 지역 기반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 성인교육국에서 열리는 모든 강좌를 소개할 때마다, 개설되는 지역까지 공지하고 있다. 즉 <그림 4>의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설되는 지역의 가톨릭 성인교육국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강의가 개설되는 지역을 검색하게 하는 방법이 흥미롭다. 피교육자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의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현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20km, 50km, 100km, 200km를 설정하면, 그 지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지역 기반 교육프로그램 검색 방법은 피교육자가 좀 더 수월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지역교회에서 시작하여 독일 교회 전체가 공교회로서 공적 책임을 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시민학교와 다른 가톨릭 성인교육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회의 공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고립된 교리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성취하기보다는 개방적 대화 속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동등한 상호관계성을 통해 탈인습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개방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가톨릭 성인교육은 “절차적 과정(관계성)과 타인과의 호혜적 참여(평등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대화 학습(개방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탈인습성을 성취”⁴²⁾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V. 나가는 말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이해해하면서, 공공의 복리와 제도를 위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사회는 하느님이 제정한 자연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를 투쟁하고 갈등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선이 실현되는 곳으로 건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신앙의 사사화와 주변화로 인해 종교적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 있다. 사회 전반에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으로만 향하지[Intra Ecclesiam] 말고, 교회 밖으로 향하여[Extra Ecclesiam] 나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공적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적 신학의 등장은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사회 갈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실존적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델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사례에서 찾아보았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세대별 중점 사목 가운데 교회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노인사목과 청소년 사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과 청소년 사이에 끼어 있는 ‘성인기’의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성인’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사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세대이다. 주일에는 ‘가톨릭 신자’로, 평일에는 ‘성인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분법적 삶을 영위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것, 특히 근대성의 조건들 아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들로 구획된 현대사회는 많은 신을 섬긴다. 정치,

42) Eds., Richard R. Osmer, Friedrich L. Schweitzer, 앞의 책, 261쪽.

법, 비즈니스, 미디어 등 각각의 영역이 참여자들에게 고유한 규칙을 부과한다. 이 새로운 다신교 사회에서는 일터에서 섬기는 신과 가정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신이 다르다. 각 영역은 하나의 신이 모든 삶의 영역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⁴³⁾

이제 교회는 실존적이며 내면적인 측면만 강조해 온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사회에 대한 공적 참여를 통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학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공적 맥락’ 또는 ‘공적 상관성’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는 성인교육을 통해 신자들이 공적 담론을 끌어내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앙에 대한 성찰과 실천으로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場)으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시민사회로 향한 ‘공적 참여’를 모색하고 ‘가톨릭 성인교육’을 통해 ‘공적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로써 ‘가톨릭 성인’이 ‘가톨릭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홈페이지 첫 장에는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강과 대성당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토(motto)가 있다. “WEIL BILDUNG BUND IST...”(“왜냐하면 교육은 다채롭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가톨릭, 신자, 교리교육과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바로 교회가 시민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교육을 통한 ‘공적 참여’라 할 수 있다. 독일 가톨릭 교회가 시민사회 속에서 다양한 교육대상과 다양한 교육주체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다양성 속에서 가톨릭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구에 담겨 있다. 더구나 이 모토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 올 위기 속에서도 공적 실천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공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다채롭게 시민 사회 속에서 교육을 통한 공적 참여를 하는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이, 「가톨릭 신앙공동체 성인 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Sharing Praxis를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3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김경재,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관한 한국 개신교의 두 흐름」『공공철학』16 (동

43) Miroslav Volf, 앞의 책, 39쪽.

- 경: 동경대학출판회, 2006).
- 김남희.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神學展望』 192 (나주: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 김종철. 「촛불시위와 ‘시민권력」『녹색평론』 152 (서울: 녹색평론사, 2017).
- 김해자. 「여기가 광화문이다」『함께 꾸는 꿈』 110 (대구: 대구참여연대, 2017).
-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이상오. 「Spranger의 문화인간학적 시각에서 본 성인교육의 가능성」『教育學研究』 34 권 5호 (서울: 韓國教育學會, 1996).
- 이형기. 『하느님 나라와 공적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 임철일. 「평신도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교회 내 평생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 (통합사목연구소 2차 연구발표회 자료집, 2006).
-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용인: 킹덤북스. 2010.
-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神學展望』 177 (나주: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가톨릭신학』29 (경산: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6).
- Asad, Talal *Formations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Benne, Robert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Casanova, José “Secularization Revisited: A Reply to Tala Asad”, eds., David Scott & Charles Hirschkind, *Powers of the Secular Modern: Talal Asad and His Interlocuto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Forrester, Duncan B. *Truthful Action: Explorations in Pratical Theology*, Edinburg: T&T CLARK, 2000.
- Gaillardetz, Richard R. *An Unfinished Council: Vatican II, Pope Francis, and the*

- Renewal of Catholicism*, Liturgical Press, 2015.
- Groome, Thomas,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1.
- Eds., Osmer, Richard R., Schweitzer, Friedrich L., *Developing a Public Faith: N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공적 신앙과 실천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Thiemann, Ronald F.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회출판부. 2017.
- Better Life Index와 관련된 자료, 사이트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체 기관 사이트 <https://keb-deutschland.de/profil/>
-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홈페이지
<https://www.keb-regensburg-stadt.de/ueber-uns/die-keb-in-regensburg/>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5일, 심사일: 2018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6일

연구자소개: 김남희

-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영성교육, 가톨릭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 신종교, 동학(천도교)
 - ③ 주요논저: 「새로운 복음화와 가톨릭 학교교육의 향방(向方)」,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천인관계로 살펴본 천도교 영성의 의미와 성격」, 「천도교 영성의 드러남과 나눔, 덕(德)과 동덕(同德)-천도교 영성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구원의 유형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
 - ④ E-mail: namikisb@catholic.ac.kr
-

Abstract

In Search of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and its Necessity

Kim, Nam-H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ccording to the 'Better Life Index' presented by OECD in 2017, while Korea's 'Civic Engagement' appeared to be high however indicators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Work-Life Balance' appeared to be low. Especially, 'Community' rate ranked last in the list. This represents exposure of the limitation of 'Civic Engagement'. In other words, as the opinions of citizen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policy, it means that social conflicts has already been potentially existed in Korean society.

These social complications have become maximized in Korean society and resulted in the candlelight rally 2016. The candlelight rally was the movement of reconfirming the power of citizen through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movement gave consideration on what is needed to maintain continuous life force of 'the power of citizen'.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candlelight rally ended, though the consideration on what detailed suggestions in maintaining the continuous life force of the power of citizen are still available until the present time.

Therefore this paper will start with the consideration on sustainability of 'the power of citizen' shown by the candlelight rally. At the same time alternatives in the religious aspect will be suggested as a sustainable solution to social conflicts. Specifically the necessity of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will be raised to foster mature citizens inside the church. In order that the reemergence of 'public faith' which is the social dimension of religious belief will be discussed beforehand. And then this paper will emphasize that there is a new kind of demand on the role of 'public religion' in present day.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within the boundary of 'public religion' will be addressed.

The following discussion is about the possibility of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The possibility of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will be considered through Adult Education in German Catholic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Thereby, this

paper will raise 'A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of Korean Catholic Church as to contribute in solving social conflicts.

Key words: Catholic Adult Education, Public Religion, Public Faith, Public Theology, Social Conflict